



베이징올림픽 D-58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손님맞이 본격화... '문명운동' 요란 침 안벨기·매일 이답기 운동까지

'지진 정국' 이후 본격적으로 올림픽을 살리기 위한 강은(強溫) 양면 작전이 시작됐다. 우선 시민의식,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캠페인이 다시 등장했다.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이다. 지진 사태로 흥흥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일어날 수 있는 체제 위협 움직임을 다잡기 위한 조치도 내렸다.

지금까지의 중국을 보자. 길거리에 가래침 빨기, 땀뻘 건어 뺏살 드러내기, 공공장소에 쓰레기 버리기 등은 상당수 중국인의 '주특기'였다. 신호등은 차질의 장식품에 불과했다. 이제 지난 4월 들어 상당히 바뀌었다.

수단은 캠페인과 제재 두 가지였다. 베이징 시 정부는 시내 430만 가구에 '문명에 걸맞은' 배포했다. 택시기사들에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택시 앞좌석에는 '자주 머리 감기, 매일 이 닦기' 등의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붙였다. 영어 교육도 실시했다.

공안국도 바쁘다. 권력의 상징이던 교통 경찰들에게 근무 교복을 내렸다. 단속 때는 존경으로 양해를 구하고, 손가락질 같은 무례한 행위를 금지시켰다. 침 빨기에 대해서는 50 위안(한화 약 7천원)의 벌금을 물렸다.

환경운동에도 탄력이 붙었다. 시 환경보호국은 지난달 '베이징 대기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올림픽과 무관한 모든 건축·토목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 6월 1일부터는 무료 비닐봉투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했다.



베이징 거리의 횡단보도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수신호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환경 캠페인은 5월 12일 발생한 쓰촨(四川) 대지진으로 전면 중단됐다. 그러자 곧 다시 무질서가 돌아왔다. 거리엔 침 자국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차는 길 위에서 다시 엉켰다. 올림픽 분위기도 자연 실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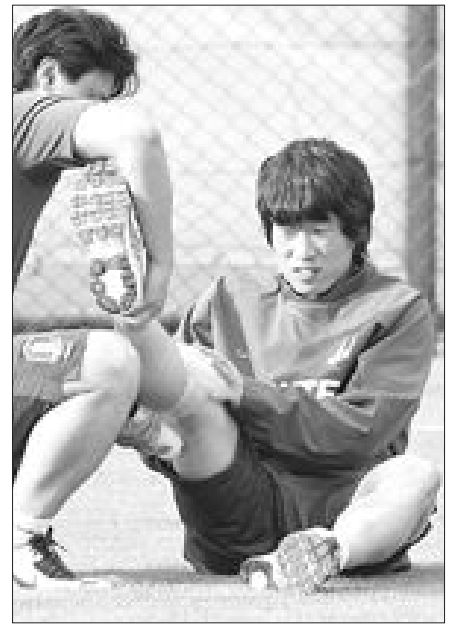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다시 캠페인을 들고 나왔다. 연예인, 사회 저명인사 등을 등장시켜 '문명'을 강조했다. '올림픽을 맞아, 문명을 강조하고, 새로운 기풍을 세우자(迎奧運, 講文明, 樹新風)'란 표어가 다시 거리에 등장했다. 지진의 침울한 분위기를 내몰고, 올림픽 활기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되찾자는 계산이다.

사회 분위기를 조이기 위한 조치도 등장했다. 지진으로 인해 반정부 움직임이나 사회질서 교란 움직임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현장을 보자. 학교건물 붕괴로 자란 잃은 부모들이 당국자 면담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곳곳에서 구호를 외치며 사기와 구호물자 탈취도 유행하고 있다. 이를 발견한 시민들이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집단시위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는 일부 외신의 시위 보도를 막았다. '지진 피해지역에 좀도둑 구경, 사실상 부정부 상향' 등을 보도한 국내 언론에 대해서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벌여 경고했다. 불순분자가 준동할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이를 위해 40개 조로 구성된 테러대책반을 발족시켰다.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기 위한 안락그물망이 비로소 완성된 셈이다.

/jrkccm@paran.com



10일(한국시간) 열린 '유로 2008' 네덜란드-이탈리아전에서 이탈리아 골키퍼 지안루이지 부폰(왼쪽)이 네덜란드의 3번째 골을 막아내지 못하고 득점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3-0으로 승리했다.



지난 7일 오르단 원정 이후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생긴 박지성이 10일 오전(한국시간) 대표팀 훈련이 진행된 터키 이스탄불 갈라타사라이 전용 훈련장에서 얼음 마사지를 받고 있다.

박지성 무릎 이상

'산소 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오른쪽 무릎에 불편함을 호소해 투르크메니스탄 원정(14일·오후 11시)을 앞둔 허정무후에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박지성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 인근의 갈라타사라이 트레이닝센터에서 실시된 축구대표팀의 회복훈련에 빠진 채 운동화를 신고 그라운드 주변을 걸으며 컨디션 조절에 나섰다.

박지성이 이날 훈련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 5월 오른쪽 무릎 연골재생 수술을 받은 부위에 불편함을 느껴서다. 통증은 없지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느낀 박지성이 회복훈련 대신 재활을 선택한 것이다.

훈련에서 빠진 박지성은 최정우의 무릎과 함께 그라운드 주변을 걸으면서 무릎 상태를 점검하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얼음 찜질로 부상 악화에 대비했다.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 2파전

조영기 전남회장 불출마 따라

지난 4월 김경길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가 조영기(70) 전남협회장의 불출마로 김성태(60) 부산협회장과 홍준표(54)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조영기 회장은 태권도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하루 전날인 10일 제24대 협회장 선거 불출마와 함께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조 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 이후보 사퇴 및 홍준표 후보 지지 성명'을 통해 '협회장 선거가 3자 경선 구도 속에 정치적 양상을 띄며 태권도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화합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후보 사퇴 배경을 밝혔다.

'오렌지 군단' 30년만에 '빋장수비' 뚫다



네덜란드, 강호 이탈리아 3-0 제압 프랑스, 루마니아전 아쉬운 무승부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월드컵이던 이탈리아를 완파하고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유로2008) '죽음의 조'에서 첫 승을 올렸다.

네덜란드는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베른의 스타드 드 스위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전반 26분 루트 판 니스텔로이와 31분 베슬레이 스네이더르, 후반 34분 히오바니 판 브롱크호르스트의 연속골로 2006 독일월드컵 우승국 이탈리아를 3-0으로 꺾어 제압했다.

네덜란드가 A매치에서 이탈리아를 꺾은 것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2-1 승) 이후 30년 만이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몰아 붙여가던 네덜란드가 이탈리아 골문을 연 것은 전반 26분이다.

라파엘 판데르파르트가 이탈리아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올린 프리킥을 골키퍼 잔루이 부폰이 쳐냈고 멀리 가지 못한 공을 요리스 마테이션이 잡아 뒤로 내쳤다.

이어 페널티지역 왼쪽에 있던 판 브롱크호르스트가 슈팅을 날리자 골문 앞에 있던 판 니스텔로이가 오른발 안쪽으로 살짝 볼의 방향을 틀어 골망을 흔들었다.

5분 뒤인 전반 31분에는 이탈리아 안드레아 피롤로의 코너킥을 판 브롱크호르스트가 걷어내며 위기를 넘긴 뒤 역습을 성공시켜

점수 차를 벌였다.

네덜란드는 후반 33분 파비오 그로스의 슈팅 등 이탈리아의 몇 차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골키퍼 에드윈 판데르사의 선방으로 무산시킨 뒤 결국 후반 34분 카윗의 크로스에 이은 판 브롱크호르스트의 헤딩골로 승부에 해기를 박았다.

1984년, 2000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프랑스는 앞서 취리히 레치콘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C조 첫 경기에서 루마니아와 득점 없이 승부를 거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 첫 무승부 경기다.

역대 전적에서는 6승2무3패로 우위를 이 어갔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잇따라 맞붙어야 할 프랑스로서는 승점 1은 못내 아쉬웠다.

한편 주장 완장을 차고 풀타임을 뽐 프랑스의 중앙수비수 릴리앙 튀랑은 유럽선수권 대회 본선 최다 출전 기록(15경기)을 세웠다.



11일수 ▲NBA 파이널 3차전 LA레이커스 : 보

스탄(10 : 00·MBCESP) ▲메이저리그 LA다저스 : 샌디에이고 (10 : 50·Xports) ▲프로야구 <기아 : 우리>(18 : 30·MBCESP), <한화 : 삼성>(18 : 10·SBS 스포츠), <SK : LG>(18 : 20·Xports), <롯데 :

두산>(18 : 00·KBSN SPORTS) 12일(목) ▲유로 2008 <체코 : 포르투갈>(01 : 00), <스위스 : 터키>(03 : 30·MBCESP)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Help' (작은만남 큰기쁨) with various business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